

# 조상우 지키고 김범수·홍건희 영입...KIA, 반등 퍼즐 완성



조상우 포함 투수 FA 모두 계약...불펜 안정화 기대  
좌완 김범수·우완 홍건희 가세로 뒷문 단속 강화

KIA 타이거즈가 FA 계약으로 불펜을 강화했다. '집토끼' 조상우와의 FA 계약을 마무리했고, 좌완 김범수와 우완 홍건희도 영입했다.

KIA가 우완 조상우와 21일 계약 기간 2년, 총액 15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8억원, 인센티브 2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KIA는 한화에서 활약한 FA 김범수도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5억원·연봉 12억원·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20억원에 영입했다.

또 KIA를 거쳐 두산에서 뛴 홍건희와 연봉 6억 5000만원, 인센티브 5000만원 등 총액 7억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면서 불펜 전력을 채웠다.

2024년 12월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는 이번 계약으로 2025시즌에 이어 2027시즌까지 챔피언스필드 마운드를 지키게 됐다.

조상우는 지난 201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넥센(현 키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해까지 10시즌 동안 415경기에 출전해 39승 89세이브 82홀드 485탈삼진 평균자책점 3.21을 기록했다.

KIA 유니폼을 입은 2025시즌에는 72경기에 나와 60이닝을 책임지면서 6승 1세이브 55탈삼진 평

군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또 28개의 홀드를 올리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홀드 기록도 경신했다.

2024시즌 군복무를 마치고 이 해 중반 마운드로 돌아온 그는 부상까지 겹쳐 험난한 복귀 시즌을 보냈다. 그 여파로 지난 시즌에도 초반 기록은 있었지만 9월 이후 10경기에서 실점 없이 9.1이닝을 지키면서 2승 2홀드를 기록하는 등 기대감을 키웠다.

FA 계약으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된 김범수는 2015년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했으며 2025년까지 11시즌 동안 481경기에 출전, 27승 5세이브 72홀드 484탈삼진과 평균자책점 5.18의 성적을 작성했다.

지난 시즌 73경기에 나선 김범수는 48이닝 동안 2승 2세이브 6홀드 41탈삼진 평균자책점 2.25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한화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기여했다.

KIA는 강력한 구위를 보유한 좌완을 더해 불펜 다양성을 더하게 됐다.

2020년 6월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에서 두산으로 이적했던 홍건희는 6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화순고 출신의 홍건희는 2011년 드래프트 2라운



불펜 투수 조상우(왼쪽)가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뒤 심재학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홍건희



김범수

드 전체 9순위로 고향팀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며, 12시즌 동안 488경기에 등판해 677이닝을 던지면서 27승 58세이브 55홀드 602탈삼진 평균자책점 4.92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20경기에서 16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6.19로 2승 15탈삼진을 만들었다.

KIA는 마무리 경험이 있는 홍건희로 뒷심을 더할 전망이다.

박찬홍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쿼터로 내야수 제리드 데일을 선택했던 KIA는 외부 영입으로 마운드 전력을 더해, 반등의 시즌을 맞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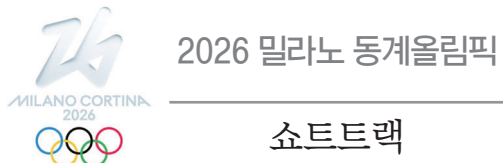
한편 조상우를 끝으로 지난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던 KIA 선수들의 거취가 모두 확정됐다. '내야 핵심' 박찬호와 '타격 레전드' 최형우가 각각 두산과 삼성으로 이적했고, 포수 한승택은 KT에 새 등지를 틀었다.

KIA는 투수 자원과는 모두 계약을 체결했다. KIA는 좌완 이준영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12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에 내부 FA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끝냈다.

이어 양현종과 계약 기간 2+1년, 총액 45억원(계약금 10억원, 연봉, 인센티브 포함)에 세 번째 계약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효자 종목 쇼트트랙, 밀라노에서 다시 금빛 질주



역대 동계올림픽서 금 26개 획득  
1500m 최민정·임종언 금 기대

우리나라 동계 올림픽 '메달밭' 쇼트트랙은 빙상 3개 종목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short track speed skating)이다.

400m 트랙에서 펼쳐지는 롱트랙(long track)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111.12m의 짧은 트랙에서 열려 이런 이름이 붙었다.

쇼트트랙은 1900년대 북미에서 인기를 끌던 경주식 스피드 스케이팅이 시초로, 트랙과 경기 방식 등 규정이 정립되면서 독립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펼쳐졌으나 쇼트트랙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1967년 쇼트트랙을 공인했고 1976년에 첫 국제대회를 열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건 40년이 채 되지 않았다. 1988 캘거리 동계 올림픽 시범 경기를 거쳐 1992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됐다.

쇼트트랙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차이점은 크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주로 기록으로 경쟁하고, 쇼트트랙은 여러 명의 선수가 등수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선수가 좁은 빙상장에서 경쟁을 펼치는 쇼트트랙이 더 박진감 넘치고, 그만큼 변수도 많다. 쇼트트랙은 곡선 변경이 짧아서 코너링 등 다양한 스케이팅 기술이 필요하고 작전 및 전술도 중요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조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엔 9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개인전은 남녀 500m와 1000m, 1500m 6개 중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를 한달 앞두고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임종언 등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 단체전은 남녀 계주와 혼성 계주 3개 종목이 각각 열린다.

쇼트트랙은 1992 알베르빌 대회 때 남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여자 500m, 여자 3000m 계주 4개 종목으로 시작했고, 1994 릴레함메르 대회 때 남자 500m와 여자 1000m가 추가됐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선 남녀 1500m가 추가돼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주요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2022 베이징 대회 때 혼성 2000m 계주가 포함돼 현재에 이르렀다.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동계 올림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이 역대 동계 올림픽에서 판 33개의 금메달 중 26개(78.8%)를 담당하며 종합 순위 싸움에 앞장섰다.

한국 최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도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김기훈이 1992 알베르빌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우승했다.

그는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최초의 동계 올림픽 다관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한국은 쇼트트랙을 발판 삼아 동계 스포츠 변방에서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올림픽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다. 가장 최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선 편파 판정 논란에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밀라노·코르티나남페조 동계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여자 1500m 최민정(성남시청)과 남자 1500m 임종언(고양시청)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남녀 계주도 금메달이 목표다.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보인 캐나다 남녀 에이스 윌리엄 단지누와 코트니 사로가 강력한 경쟁자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에이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중국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법률·노무 전문가 위촉

행정 효율성·공정성 강화

광주시체육회가 법률·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 변호사와 자문 노무사를 위촉했다.

자문 변호사는 손창환 변호사(법무법인 로컴 대표)와 박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맥 대표)가 맡는다.

손창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광주배구협회 부회장으로 체육 현장 경험을 갖쳤다.

박강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등을

지냈으며, 광주지방공세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시체육회는 자문노무사로 문승춘 노무사(노무법인 웰드 대표)도 위촉했다.

문승춘 노무사는 공인노무사 10기로 광주경영자총연합회 자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제주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시체육회는 사법·행정·노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체육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체육행정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체육 꿈나무들 '숨은 재능' 찾는다

전남도체육회, 체육영재 발굴 캠프 개최...기초체력 등 분석

"누가 '국대'가 될 상인가" 전남 체육 꿈나무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남도체육회는 22~23일 이틀간 장흥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체육영재 발굴 캠프'를 열고 도내 청소년 인재 발굴에 나선다.

이번 캠프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성과로 확보한 사업비 6000만원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을 제외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체계적인 측정·상담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 250명이 캠프에 참가해 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의 전문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근지구력·근파워·순발력·민첩성·유연성·심폐지구력 등 기초 체력을 종합 점검받는다.

측정은 이틀간 A·B팀으로 나눠 진행되며 심리검사와 체력 측정을 교차 운영해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함께 분석한다.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지도·상담에도 참여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체육활동 방향과 진로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VR 영상 등 다양한 단체 구기종목 체험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 유망 체육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남 체육영재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